Market Rader

2024년 11월 21일

# 엔비디아 호실적도 못살린 밋밋한 시장

[ Market Analyst ] 이재원, 조민규 연구원

## KOSPI는 0.2% 상승한 2,488p. 거래대금 반등도, 외국인 자금 유입도 없는 업종/테마별 순환매 장세

- **미국 주식시장은 ①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갈등 고조 ②타겟 급락 ③엔비디아 실적 대기 속 혼조세**
  :러- 우 지정학적 갈등 지속. 미국의 군사 패키지 전달, 우크라의 대러(스톰 섀도) 본토 공격
  :대형마트 타겟(-21.4%), 주가 급락. 수익과 매출 모두 부진.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속 시장 혼조 마감

- **[엔비디아 FY3Q25 실적]①매출액 351억달러 (컨센대비 +5.8%, +93.6% 전년대비) ②영업이익 233억달러 (컨센대비 +7.2%, +101.4% 전년대비) ③EPS 0.81달러 (컨센대비 +8.3%, +102.5%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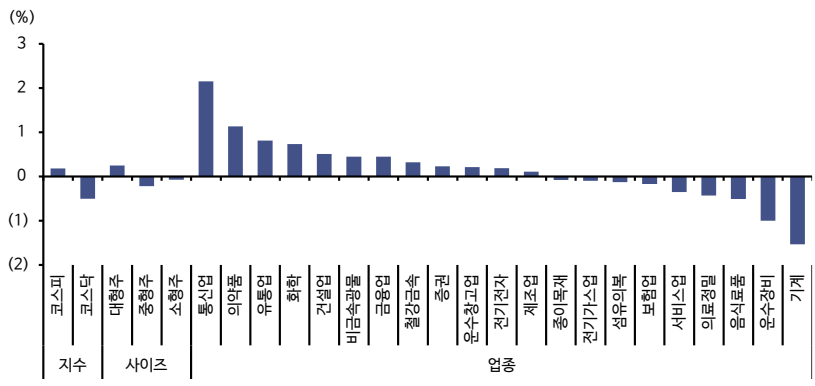
- **KOSPI는 통신, 에너지, 화학, 헬스케어 업종 상승 Vs. 조선, 방산, 기계, 음식료 업종 하락 → 또 순환매**
  :외국인 현물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선물 동반 매도. 오전 현물 600억원 선물 1,800계약 이상 순매도
  :오전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각각 3.3조원 2.6조원 수준에 불과.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유입자금 미미
  :또다시 업종별 순환매. 11월 업종별 수익률 상위권 업종(조선, 미디어, 유틸리티, 기계 등) 차익실현
  :반면 11월 업종별 수익률 하위권 업종(화학, 철강, 헬스케어, 에너지) 등은 저가매수세 유입에 상승
  :올랐던 업종 매도→많이 빠진 업종 매수. 순환매 장세 지속. 우크라 재건, 동해고래 등 테마는 지속성 부각
  :①트럼프, 국가에너지회의 신설 예고. ②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지 다음주 확정→12월 작업 시작
  :엔비디아 예상치 상회 실적에도 시간외 -2.5%. 견조한 실적에도 그 이상의 기대치. 국내 반도체 강보합
  :거래대금 반등이 여전히 미미. 뚜렷한 주도 업종 역시 부재. 테마장세 진행. 몇몇 유효한 테마 주목할 필요

## KOSDAQ은 0.4% 하락한 680p. 개별 종목 장세 지속. 제약바이오 부진이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알테오젠(-6.1%) 장중 급락(골드만의 할로자임과의 특허 이슈 언급) 후 반등. 11월 제약바이오 부진 지속
  :2차전지(테마 간 순환매+탄산리튬 가격 반등), 신규상장(전일 신규상장한 위츠, 2거래일 연속 강세) 강세
  :가상자산(비트코인 한때 9만4천 달러 돌파), 우크라이나재건(푸틴, 트럼프와 평화 협상 의향 보도) 강세

## 원/달러 환율은 연준 위원 발언에 따른 강세 이후 레벨 부담에 소폭 하락. 2.3원 하락한 1,398.6원
## 아시아 증시 하락. 일본(니케이) -0.7%, 대만(가권) -0.6%, 홍콩(항셍) -0.3%, 중국(상해) -0.0%

**업종별 주가 등락률**



## 11월 3주차 주요 이벤트

| 이벤트 | 세부 내용 | 영향 |
|---|---|---|
| G20 정상회의 (11/18~11/19) ★★★☆☆ | 우크라 전쟁 종전 시사한 트럼프, 세계 정상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br>•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 예정. 자국 우선주의 강화한 미국과 이에 대응한 중국, 러시아 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분쟁 간극 축소 여부 주목<br>•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 또한, 제3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청정에너지 전환, 그린 공적원조개발(ODA) 확대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 | 각국 정치-사회적 현안 논의 여부 주목. 특히 지정학적 갈등 |
| BOJ 우에다 총리 연설 (11/18) ★★★★☆ | 일단은 금리 동결한 BOJ, 우에다 총리의 2025년 금리 인상 경로는 어떻게 될까<br>•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11월18일 나고야에서 현지 기업 리더들과 의견을 나눈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 한편, BOJ는 매년 11월 나고야에서 총재가 참석하는 연례행사를 개최하고 있음<br>• 트럼프 트레이딩 진행, FOMC 금리 인하, BOJ 금리 동결과 함께 엔화 약세 ing. 우에다 총리 매파적 발언, 혹은 금리 인상 시사시 엔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할 전망. 현재 작성일(17일) 기준 원/엔 환율 900원 하회. 엔/달러 155엔 상회 | 엔화 등락 영향 미칠 지표 |
| 엔비디아 실적발표 (11/20) ★★★★☆ | 반도체 업종, 특히 AI 업황 호조 내년에도 지속될지?<br>• 세계 주식시장 영향력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금주 트럼프 트레이딩 진행되며 TSMC 등 미 의회의 대중 수출 규제까지 악재 발생한 반도체 업종은 소외됐던 모습. 주 후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에 반등한 바 있음<br>• 국내 반도체 업종 역시 SK하이닉스의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 보임. 엔비디아 실적 예상치 부합 여부 및 가이던스 확인할 필요 | 반도체 업종 등락 영향 미칠 지표 |
| 중국 LPR (대출우대금리) 발표 (11/20) ★★★★☆ | 전인대 상무위 실망감, 혹시 깜짝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까? 라고 할 뻔 하면서도 기대해 봅니다.<br>• 11월20일(한국시간 : 20일 오전 10시15분) 대출우대금리(LPR)가 발표될 예정. LPR은 18개 시중은행이 제시한 평균치를 토대로 발표되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있음.<br>• 11월 중국 동행지표는 정책 효과로 소비가 예상치를 상회 했으나 생산과 투자는 여전히 둔화. 20일 LPR 1년(3.1%)과 5년(3.6%) 모두 동결 예상 | 혹시 깜짝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까? |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 별(★) 개수는 각 이벤트의 중요도 표시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재원, 조민규)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